

〈書 評〉

## Coleridge에서 de Man까지: 비평의 새로운 이해

張敬烈 著, *The Limits of Essentialist Critical Thinking: A Metacritical Study of the New Criticism and Its Theoretical Alternatives*

서울: 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90. 173pp.

柳 明 淑

〈서울大學校 英文學科〉

유럽을 근거로 한 비평 이론의 홍수에 끝까지 저항한 미국의 한 보수적인 대학교에서 비평 이론 교수를 신규채용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노장교수가 이런 요지로 반대 발언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비평이란 어떤 시대든 자기 전공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한 학자가 연륜이 쌓이면서 가르치는 것이지, 작품은 짓혀놓고 이론서만 읽은 애송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노교수의 발언은 한편으로는 최근 비평 이론의 엄청난 양과 혁명적 의의를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 이론의 시대를 반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지금으로서는 시사하는 바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비평 이론은 모든 혁명적 변화가 그러하듯이 젊음의 iconoclasm으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젊은 움직임으로서 현대의 비평 이론의 장점과 한계가 있다. 젊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또 한편 쉽게 자기도취에 빠져 부수는 일에만 열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읽어내는 작업은 짓혀두고 추상적인 이론의 미로를 맴돌거나 자신이 새로운 시작인 양 역사의식을 지워버리는 폐단이 현대 비평 이론에서 나타나는 것도 무분별한 iconoclasm의 결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장경렬 교수의 저서 *The Limits of Essentialist Critical Thinking*의 서평을 쓰면서 현대 비평 이론의 공과에 대해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장교수가 최근에 미국에서 비평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비평가이면서도—이 책은 그의 박사 학위논문을 개정 출판한 것이다—젊은 비평의 폐해를 찾아볼 수 없다는 놀라움 때문이다. 유행의 첨단을 걷는 쪽에서는 이 책을 구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서평자로서는 단단한 철학적 배경과 현대 비평의 단초를 S. T. Coleridge로 잡는 폭넓은 시각을 비평적 성숙으로 정의하고 싶다. 장교수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 책은 놀라울 정도로 젊지 않은 책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

히 논쟁적인 책은 아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에 탐닉하는 책들에 식상한 후 장교수의 책을 읽으며 공감하는 기쁨은 적지 않다.

이 책이 예를 들어서 Frank Lentricchia의 *After the New Criticism*과 다른 점은 Coleridge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비평 이론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과거를 부정하는 정도까지 근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자가 Coleridge의 상상력 이론과 언어관을 상술하면서 신비평에 속하는 일련의 비평가들과, Murray Krieger, E. D. Hirsch, Paul de Man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삼는 것은 시도 자체로서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책은 시도로 그치고 마는 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서평에서도 시도를 넘어서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Coleridge에게 할애된 지면이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 적다. 특히 신비평이 Coleridge의 초기 개념에 매달려 언어를 화석화하였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을 만큼 그의 사상 전반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Coleridge가 후기에 가서 언어를 'active principle of creation'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편지 글 하나와 'On Poesy or Art' (1818)에서 인용을 하고 있을 뿐, *Aids to Reflection* (1825)과 같은 중요한 후기 저서에의 인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물론 Coleridge의 언어관은 그의 저작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신비평을 다루는 3장에서는 I. A. Richards, John Crowe Ransom, Cleanth Brooks를 거론하고 있는데,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있는 비판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과학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하였으면서도 신비평이 Coleridge가 상정한 인식과 언어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 대신 고정된 의미로 고착시키는 객관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은 명쾌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장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신비평과 맥을 같이 하는 T. S. Eliot에 대한 자리매김이 빠졌다는 것이다. Eliot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각주에는 나온다. 그러나 왜 각주인가?—신비평에 대한 비판은 총론보다는 각론에 대해 손쉬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듯 싶다.

Murray Krieger와 E. D. Hirsch를 각각 다루고 있는 4장과 5장은 저자의 단단한 철학적 배경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신비평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이에 반발하고 가치 판단의 문제에 천착한 Krieger의 경우는 Kant의 영향을, 언어의 자율성이라는 신비평적 가설에 정면 도전하기 위해 작가의 의도 문제를 들고 나온 Hirsch의 경우는 Husserl의 영향을 받은 사실에서 출발, 저자는 Krieger나 Hirsch가 Kant나 Husserl을 오독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이 두 장에 대해서는 저자가 한글로 개정 보완하여 발표한 글이 있음을 밝혀둔다. 「비평의 객관성과 가치 판단의 문제 : Murray Krieger의 경우」(『미국학』 제12집, 1989), 「작가의 의도와 비평적 객

관성의 문제 : 허쉬의 비평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철학과 현실』 1990년 가을호).

3, 4, 5장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책의 짜임새는 Coleridge를 다루는 2장과 Paul de Man을 다루는 6장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약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차라리 Coleridge와 de Man 부분을 강화하여 *Coleridge and de Man*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으면 어떨까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장은 이 책의 핵심을 이룬다. 이는 Coleridge와 de Man의 연결고리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de Man의 비평적 입장이 상당 부분 저자가 3, 4, 5장에서 행하는 신비평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위대한 낭만주의 비평가를 연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낭만주의의 이해의 첩경이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저자는 de Man이 객관주의/본질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temporal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의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고양된 문학적 언어를 탈신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를 신비화하는 자기 함몰적인(self-reflexive)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질주의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de Man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I. A. Richards에서 de Man에 이르는 비평가를 모두 본질주의라는 테두리에 넣음으로써 이 용어가 이 책에서 갖는 효용성은 약해진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결론의 제목이 'Beyond Essentialist Critical Thinking'이기는 하지만 본질주의 비평을 극복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Wordsworth의 'A Slumber Did My Spirit Seal'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이 시에 대해서는 Brooks, Krieger, Hirsch, de Man이 논평을 한 것을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평자는 저자가 자기 나름의 읽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신 저자는 de Man의 읽기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는데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는 것이 서평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de Man이 Wordsworth를 죽음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몇 안되는 시인 중의 하나라고 말한 것을 꼬집어 죽음은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입증할 수 없는 전거를 사실로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함으로써 저자 자신이 객관주의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142-43 참조). 램트의 말을 빌리자 않더라도 죽음의 나라에서 돌아온 여행자가 어디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A Slumber Did My Spirit Seal'이 주는 섬뜩함은 Wordsworth가 죽음의 세계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 때문이 아닐까.

서평자는 이 책이 최근 비평 이론의 폐해에 물들지 않은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칭찬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으로 서평을 대신한 것은 이 책이 실제로는 젊은 비평가의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비평 이론의 비판적 수용을 위해 이 젊은 비평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